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6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리나와 두 자녀들, 우크라이나 바티오보의 대피시설 근처 놀이터에서
PHOTO: Dániel Fakete/Okumenikus Segélyszervezet (BACKGROUND PHOTO: HIA)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인 오늘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구호위원회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구호위원회는 위기를 만난 지역에 찾아가 우리를 대신해 실제적 사역을 진행하는 단체입니다. 구호주일 헌금이 구호위원회의 제반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특정 재난을 명시해 드려진 지정 후원금들이 전액 재난 대응 및 복구 사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수백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특별선교헌금을 통해 구호위원회의 사업경비를 후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사무실 불을 밝히는 등, 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구호위원회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합니다.



PHOTO: IBC

예를 들어,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구호위원회는 지역 내의 연합감리교회들, 지역 사회 및 정부 파트너 기관들과 동역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남겨진 이들과 주변 국가로 피신한 이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구호주일 헌금이 구호위원회의 제반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국제적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어드밴스(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Advance)에 기탁된 후원금이 전액 재난 대응 사업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체코 등의 국가들에 있는 감리교회들을 통해 일하거나, ACT 연합, 국제정교회자선단체(International Orthodox Christian Charities), 인권리그(Human Rights League)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려움에 처한 가족, 여성, 어린이, 장애인에게 이동 수단 지원, 음식, 물, 의복, 쉼터, 의약품, 법률 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호위원회는 또한 키이우(Kyiv)의 병원들에 2백만 달러 이상의 의료 장비를 보내는 일을 후원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물품이 배달될 예정입니다. 구호위원회는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필요 물품 및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 전역의 연합감리교회 감독 및 여러 파트너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동유럽과 중부 유럽의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며, 구호위원회는 계속 그곳에 남아 수년이 걸릴 복구 재건 사업을 도울 것입니다.

지원 방법:
체크 메모난에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 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